4강 섹슈얼러티에 대한 성찰

1. 인간은 탄생에서부터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 성생활은 사춘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자마자 나타나는 평범한 현상들로부터 시작한다. ⓑ '성(sexual)'과 '생식(genital)'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성은 생식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생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포함한다. ⓒ 성생활에는 신체 기관을 이용하여 쾌락을 얻는 기능이 포함된다. 그 기능은 결과적으로 번식의 목적에 부응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주된 관심사는 당연히 세 가지 사실 가운데 가장 뜻밖인 것인 첫 번째 사실에 집중된다.『정신분석학 개요』(1940)

-정신분석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주로 조롱받은 이유는 프로이트가 갓난아이에게도 성욕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은 성기적 결합이나 번식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 유아 성생활의 비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최초의 성감대이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 속에 리비도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신체 기관은 입이다. 맨 먼저 모든 심리적 활동은 바로 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된다. 물론 그 충족은 영양 섭취를 통한 자기 보존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생리학과 심리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입으로 빨려고 하는 버릇은 한편으로는 영양의 섭취에서 비롯되고 그것에 의해 자극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섭취와 별도로 쾌락을 얻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성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구순기에 이미 치아의 등장과 함께 가학적 충동이 분리되어 나타난다.

공격과 배설 기능에 충족을 찾으므로 우리가 가학적 항문기라 부르는 두 번째 시기에 이는 더 큰 범위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공격적 충동을 리비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는, 사디즘이 리비도적 충동과 파괴적 충동의 본능적 혼합물이며 이 혼합이 이때부터 지속된다는 견해에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소위 남근기인데, 이 시기는 말하자면 성생활의 선구자로서 이미 성생활의 최종 형태와 유사하다. 여기서 양성의 성기가 아니라 남성의 성기만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 남근기와 함께, 이 시기 동안 유아의 성욕은 그 절정에 달했다가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소년과 소녀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걸어간다. 이 둘은 그들의 지적 활동을 성 연구에 바치기 시작하고 남근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제 양성의 길은 갈라지게 된다. 소년은 오이디푸스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소년은 남근을 자위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남근의 그 어떤 성적 활동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가 거세 위협을 느끼는 것과 여성에는 남근이 없다는 것을 본 것이 결합되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외상을 입게 되기까지 지속되고, 이 외상에 의해 그 모든 후속 결과를 갖는 잠재기가 시작된다. 소녀는 소년과 똑같이 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 남근이 없다는 것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음핵의 열등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성격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경쟁에서의 최초의 실망의 결과 소녀는 종종 성생활 일반에서 멀어지게 된다.『정신분석학 개요』(1940)

-프로이트는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신체 기관을 중심으로 유아의 성생활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입으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시기[=구순기]이다.

-유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시기로 진입한다. 그것은 바로 항문에 의해 쾌감을 느끼는 시기[=항문기]이다.

-유아는 항문기를 거쳐서 드디어 남근기에 이르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내아이는 긍정적으로 남근에 의한 쾌감을 유지하나,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남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근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 사내아이는 어머니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게 남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남근을 원한다고 상상한다. 이어서 사내아이는 자신의 남근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로부터 사내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사내아이는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에 빠지고, 결국 거세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유아의 성생활은 표면에서 사라지고, 뒷날 사춘기의 성생활이 시작할 때까지 유아 속에 잠재하게 된다.

3.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힘, 리비도!

◇ 인간과 동물이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생물학에서 배고픔, 즉 식욕과 관련해서 '성적 본능'이라는 가설로 표현된다. 일상 언어에서는 성적 본능에서의 '배고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그에 맞는 '리비도(libido)'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일반 대중들은 성적 본능의 특질과 특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상당히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본능은 유년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성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춘기에 시작되고, 이성이 내보이는 매력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릴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그 목적은 성적 결합, 또는 성적 결합을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견해가 실제 상황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그릇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나는 두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적 대상(sexualobjekt)'으로서의 성적 매력으로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 목적(sexualziel)'으로서 성적 대상을 향한 본능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면 많은 일탈 행위가 성적 대상과 성적 목적이라는 양측면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성적 이상」(1905)

-프로이트는 성적 쾌감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리비도(libido)'라고 정의한다.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여로서 사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 남녀의 성적인 쾌락에는 유아 시기의 성생활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셈이다.

-성욕도착, 그리고 수치심과 혐오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정상적인 성적 목적은 성교라는 행위를 통해 생식기가 결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행위는 성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성본능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킨다. 이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과 유사한 만족감이다.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성행위 과정에서도 우리는, 만일 발전된다면, 성욕도착이라고 하는 일탈행위로 전이될 조짐을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지거나 보는 행위와 같은, 성적 대상에 대한 중간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들은 성교에 이르는 도상에 놓여 있고, 예비적인 성적 목적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만지거나 보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즐거움을 수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을 고조시키는데, 그 흥분은 최종적인 성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성욕도착은 해부학적인 의미로 성적인 결합을 위해 마련된 신체 부분들의 범위를 넘는 확장된 성행위, 또는 정상적으로는 최종적인 성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지나가야 할 성적 대상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지체하는 성행위이다.

(…) 성욕도착을 연구한 결과, 우리는 성본능이 저항력으로 작용하는 정신적인 힘들과 싸워야 하며, 그 힘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치심과 역겨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힘은 본능이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어느 개인의 성본능이 전성기에 이르기 전에 발달된다면, 성본능의 발달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수치심이나 역겨움일 것이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성적 이상」(1905)

-프로이트는 수치심과 혐오감의 감정으로부터, 다시 말해 신체와 관련된 성적 쾌락에 대한 어떤 메타적 감정으로부터, 자아 탄생의 계기를 엿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원리, 즉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와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를 떠올리게 된다.

-유아의 성생활에 입각한 성욕도착 분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세 시기[구순기, 항문기, 남근기]가 정확하게 교체된다고 믿는 것은 오해일 것이다. 어떤 한 시기가 다른 시기에 부가되어 등장하기도 하고, 서로 교차하기도 하며 병존하기도 한다. 초기 시기들에서 개별적인 부분적 본능들을 서로 독립되어 쾌락 획득을 추구한다.

남근기에 이르러 다른 충동들은 성기의 우위에 종속시키는 조직화가 시작되며, 이는 일반적인 쾌락 추구를 성기능에 배치시키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완전한 조직화는 네 번째 단계인 성기기의 사춘기에 의해 비로소 도달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한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 많은 이전의 리비도 집중이 보존되며, ⓑ다른 리비도 집중은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소위 사전 쾌락을 만들어 내는 예비적이고 지원하는 행위로서 성기능에 수용된다. 그리고 ⓒ 다른 충동들은 조직화에서 배제되는데, 그것들은 억압되거나 자아에 다르게 사용되어 성격적 특징을 형성하고 목적 이전을 통해 승화된다. 이 과정이 언제나 완전무결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발전에서의 지장은 성생활의 다양한 장애로 드러나다. 그 경우 이전 시기의 상태에 대한 리비도의 고착이 존재하게 되며, 정상적인 성적 목적과 독립된 이 고착의 충동은 도착적이라고 불려진다.『정신분석학 개요』(1940)

-3살까지 유아의 성생활이 거쳐 가는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는 사춘기 이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잠재적으로 숨는 것이다. 마침내 성기기에 이르러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는 복잡하게 얽혀서 다시 기능하기 시작한다. 결국 리비도의 투여는 항상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셈이다.

-자아는 이드(Id)가 추구하는 쾌감과 초자아의 검열 사이에서 분열되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